

게시판

남도담사 광주불교교육원에서는 '남도 땅 끝에 피어난 불교문화'를 주제로 10월 30일 해남 대흥사, 미황사, 강진 백련사, 고산 윤선도 유적지 등을 답사한다. 접수는 10월 26일까지이며 선착순 40명. (062)228-9098

한글학교 학생·봉사자 모집 옹호종합사회복지관은 배움의 기회를 잃은 노인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옹호한글학교와 학생과 프로그램을 보조할 자원봉사자를 10월 30일까지 모집한다. (051)628-6737



무의탁 노인들기 바자회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28일, 무의탁 노인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위한 바자회를 복지관 주차장과 놀이터에서 실시한다(사진). 판매품목은 밀반찬류, 의류, 잡화 등이다. (02)2282-1100

'아파트를 한옥처럼' 강의 사단법인 한옥문화원은 11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아파트를 한옥처럼'이란 주제로 한옥 건축자재를 활용한 실내디자인 강의를 실시한다.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접수는 10월 30일까지. (02)741-7441

도·농 화합축제 인드라광생명공동체는 '쌀은 생명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도·농 화합 축제인 '2005 가을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귀농자 불품 판매, 대동놀이 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 된다. (02)576-1886

20면 상식 퍼즐 정답

도	돌	이	표		
리		준	공	식	
천	안	어	곤		
	고		증	자	
	수			자	
	비	분	강	개	손
			조	막	손

외국문화 국내에서 100배 즐기기

굳이 여행수와 배낭여행을 가지 않고 외국 문화를 접할 수는 없을가? 바로 서울 시내와 전국에 소재한 각국의 문화원에서 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주말은 가까운 외국 문화원에 들러 언어, 영화, 노래, 그림, 서적, 무술 등 다양한 외국 문화를 접해 보는 어떨까.

중국 대륙의 생활상 한 눈에-중국문화원

프랑스, 이집트, 폴타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 문을 연 중국문화원은 중국 마니아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문화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닥에 깔린 붉은 카펫을 경계로 우측으로는 중국의 유명한 화가 톱 루이가 그린 중국 황산이 웅장하게 한쪽 벽면을 다 장식하고 있다. 옆에는 서예가인 우홍엔의 스케일 큰 작품도 한쪽 벽에 멋스럽게 걸려 있으며 중국의 흉나 무로 만든 명나라 스타일의 장식장과 소파, 테이블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고즈넉하게 놓여 있다.

중국문화원의 간판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중국 무술 '태극권'과 '중

국의학 강좌'다. 중국의학의 경우 대한중의협회와 공동으로 기초이론, 기(氣) 호흡법, 안마 등을 교재비(1만 5000원)만 받고 가르쳐준다. 매달 한 번씩 중국 문화에 대한 심층강좌도 열린다. 3000원을 내고 회원으로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다.

또 100여석의 좌석을 갖춘 지하 1층 소극장에서 상영되는 중국 영화 관람(금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3시)과 2층의 전시실도 빼놓을 수 없는 이곳의 볼거리다.

문화원 3층에서 중국어, 서예, 회화교실을 열고 4층 도서관에는 1만여 권 중국 관련서적이 마련돼 있다. 11월부터는 7층 요리교실에서 중국요리강좌도 열릴 예정이다. (02)733-8307



빠른 유학정보와 최고수준의 어학강좌-영국문화원

영국문화원은 빠른 유학정보와 최고수준의 어학강좌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영어의 종주국'답게 '어학센터'에서 무려 100여개의 강좌가 열리고 있다. 이곳은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우수한 강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일부 강좌는 조기 마감될 정도로 학생들이 몰린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영어도 편하게 배울 수 있다. 도서관 책장에는 어린이들이 볼만한 그림책과 학습 관련 영어책들이 절반 이상인 것도 영국 문화원의 특징. 3·4층 대부분의 강의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다른 문화원들에선 찾아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또 영국문화원은 신문과 잡지, 일반 도서들을 비롯해 영화, 다큐멘터리, 비디오 테이프, CD-ROM, DVD 등 다양한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어 언제든지 영국관련 정보를 만날 수 있다. 문화원 인포케이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비디오나 도서 대출도 가능하다.

또한 이곳에서는 유학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정기적 설명회나 회원들 중심의 영국관련 세미나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 성인을 위한 특별교실로는 회화·청취·작문·시사 등의 강좌가 있다. (02)3702-0600



10대에서 70대까지 누구든 오라-일본문화원

일본문화원을 찾는 연령층은 10대에서 70대까지로 다양하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일본문화원을 찾는 이유는 연령대별로 외국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배치에 있다.

1층 '일본정보광장(JI·Square)'은 중장년층이 일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등을 배치해 놓고 휴식공간도 만들어 놓았다.

또 1층 도서관 한쪽엔 유학상담과 JET(일본어 능력시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코너가 있어 일본의 대학, 전문학교, 대학원 등에 관한 각종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층 일본음악정보센터 'JMIC'에는 J-POP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CD, DVD, 뮤직비디오 등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신분증을 가져가면 무료로 회원증을 만들어주며 일본 관련 티셔츠도 준다.

도서관에 가면 일본 서적은 물론 일본 만화도 원 없이 볼 수 있다.

2층 실크갤러리에서는 연중 본토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의 수준 높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일본의 세계유산은 본 따서 만든 미니어처모형, 특유의 익살스러움을 담은 민화, 일본 인형전시 등을 관람할 기회를 갖는다면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에 대한 새로운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이다. (02)765-3011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지역별 문화원

지역	문화원	전화	홈페이지	지역	문화원	전화	홈페이지
서울	독일문화원	(02)754-9831	www.goethe.de/seoul	대전	독일문화원	(042)823-3522	
	프랑스문화원	(02)317-8664		전주	프랑스문화원	(063)226-7115	
	이탈리아문화원	(02)796-0634	www.italcult.or.kr	광주	프랑스문화원	(062)527-2500	www.aifgwangju.co.kr
	터키문화원	(02)338-1801	www.turkey.or.kr	부산	일본문화원	(051)465-5101	www.kr.emb-japan.go.jp
	이스라엘문화원	(02)534-9835	www.israelstudy.co.kr	제주	일본문화원	(064)742-9501	
	뉴질랜드문화원	(02)3454-0059	www.nzc.co.kr				

연쇄살인 부른 잔혹하고 슬픈 분노

오로라 공주 감독: 방은진 출연: 엄정화, 문성근 장르: 스릴러 상영시간: 100분 등급: 18세 이상

영화 '오로라 공주'는 만화영화 '손오공'의 아름다운 여주인공 오로라 공주처럼 착하고 순진하지 않다. 다섯 명을 살해한 미모의 살인마라고나 할까. 오로라공주의 비밀과 함께 전혀 예기치 못한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밝혀지는 순간 인간의 분노를 잔혹하면서도 슬프게 그린 영화 '오로라공주'.

영화 '오로라공주'는 이미 범인을 밝힌 채 사건을 쫓아가는 구조로 기존의 장르적 성격과 차별점을 가진다. 영화 속 엄청난 액션 시 지금까지의 스릴러를 여주인공과는 다른 '눈물기름' 머금은 싸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연쇄 살인사건 현장에 어김없이 붙여넣은 오로라공주 스티커. 사건을 담당한 오형사(문성근 분)는 현장 CC-TV를 통해 '날 찾아봐...'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정순정(엄정화 분)이 범인임을 100% 직감하지만 증거 0%다. 또한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어디

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수사팀을 혼란에 빠뜨리며 각기 다른 수법으로 잔혹한 살인을 범하는 순정, 풀려 살인장소를 공개하며 도심 외곽 쓰레기매립장으로 군·경과 언론, 전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배우에서 감독으로 출사표를 던진 방은진 감독의 데뷔작 '오로라공주'. 과연 그녀의 작품이 스크린을 통해 얼마만큼 관객의 호응을 받을지도 흥미롭다.

노병철 기자



공연

들리나요? 자연의 신비가...

10월 26~27일 '사색의 춤 알·수·없·어·요' 공연

만해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 황병기의 음악, 유영교의 설치조각, 김명숙의 춤이 만났다. 김명숙 단장(이화여대 교수)이 이끄는 뿔뿔무용단이 선보이는 2005 가을신작 '사색의 춤 알·수·없·어·요'가 10월 26-27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바람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꽃이끼 시내 저녁별 등 자연을 노래한 '알 수 없어요'의 시어들은 '침묵의 언어'인 춤으로 되살아난다. 평소 애송시가 '알 수 없어요'인 황병기 명예교수(이화여대)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작곡한 '알 수 없어요'와 조각가 유영교의 작품들이 무대를 장식한다.



뿔뿔무용단이 자연을 몸짓으로 승화시킨 '사색의 춤 알·수·없·어·요'.

김명숙 교수는 "이번 작품은 자연의 소리, 빛소리 계곡의 물소리를 많이 가미시켰고,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춤 동작을 안무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기자 lygang@buddhapia.com

전시

해상왕 장보고를 찾아서

해양유물전시관서 특별전

KBS 드라마 '해신'의 여운을 잊지 못했다면 이번 주말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기획전시실로 해상왕 장보고를 찾아 떠나보자.

국립해양유물전시관(관장 김성범)과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10월 18일~12월 18일까지 국내 첫 장보고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장보고 대사의 실체를 고고학 자료와 문헌기록, 우리 민족의 해양교류사 연구업적 등을 통해 장보고를 유형화(有形化)하는 첫 시도이다. 문헌기록을 착용하고 있는 장보고 인물상을 비롯해 복원한 갑옷, 투구와 칼, 활 등이 전시된다.

전남 완도의 장도 청해진 유적과 제주 법화사지, 흑산도 경주 부여 익산 등지에서 발굴된 통일신라시대의 대중국 교역관련 유물들이 선을 보인다. 청해진 유적에서 출토된 방아용 목책, 해무리급 청자편, 청동병도 특별전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061)270-2039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표준영상.

김지연 기자

방송 프로그램

24일 07:05 아침저널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창주 FM 96.7 MHz 충청 FM 100.1 MHz	24일 21:10 한국의 명찰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5일 09:05 행복나미소		25일 02:40 불교TV스페셜	
26일 14:05 남만라디오		26일 22:10 법정 스님 법문	
27일 17:05 무명을 밝히고		27일 19:30 회암사지 산사음악회	
28일 18:25 오늘은 좋은 날		28일 15:15 휴먼디큐	
29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29일 07:30 조선불교탄압사	
30일 22:05 밤보다 아름다운 음악		30일 16:50 디스커버링부디즘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박진선의 트롯시대(10월 28일 19:00~20:00) 4050세대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박진선의 정겨운 입담과 재치로 저녁의 나른함을 말끔히 씻어보는 시간.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 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불교텔레비전: 현각 스님의 살아있는 금강경(10월 30일 01:35~02:30) 불교경전을 대표하는 <금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 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클릭!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 상품문의: (02)2004-8218~9

[DVD] '한국의 범패 시리즈'

불음(佛音)과 불무(佛舞)의 향연 '범패'를 DVD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제50호 전수자인 해공 스님의 '한국의 범패 시리즈-상용영반, 상주권공, 대령·관육'이 그것. 제1권 '상주권공'과 제2권 '대령·관육', 제3권 '상용영반'은 각각 영훈들을 위해서 지장보살님께 올리는 제의식, 영가의 극락왕생을 축원하는 범패 의식, 모든 제반의식을 하고 난 뒤 마지막 조상님께 음식을 올리고 행하는 범패의식 등을 영상으로 담았다.